

■ 위성미 한국 체류 중 얼마 벌었나?

10일간 34억5천만원



모델료 220만 달러·격려금 80만 달러
초청료 70만 달러...상금은 겨우 405만원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수식에 걸맞게 한국에서 열흘간 체류하면서 거액을 챙겼다. 위성미는 9일 하와이로 떠나기에 앞서 광진구 광장동 W서울워커히호텔에서 부동산개발업체 ㈜신영과 2년간 광고모델 계약을 했다. 금액은 모델료 220만달러에 격려금 80만달러. 위성미의 SK텔레콤오픈 초청료는 70만달러로 알려졌다. 이를 모두 합하면 370만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4억5천만원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에 들어와 열흘간 챙긴 돈이 34억 원이라면 위성미는 하루에 3억4천만원씩 번 셈이다. SK텔레콤오픈 공동 35위에 해당하는 상금은 고작 405만원.

이만하면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스포츠 스타가 대회에 초청돼 상금 이외에 부수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의 구조가 어쩐지 알만하다. 위성미는 나이키와 소니(SONY)로부터 연간 합산 1천만달러(93억원)의 후원을 받는다.

지난해 10월 위성미의 프로 전향과 함께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다. 세계 스포츠계에서는 여자 테니스계의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와 ‘흑진주’ 세레나 윌리엄스(미국)에 이어 세번째로 스폰서 계약금이 큰 여자 슈퍼스타의 탄생에 주목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테니스에 비해 선수 생명이 긴 골프에서 아직 여류지도 않은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는 위성미의 잠재 수입은 천문학적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위성미가 세계 최고 몸값의 여성 스포츠인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스포츠계의 시각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좋은 성적으로 팬들에 보답”

위성미 어제 출국

“다시 한국에 올 때는 연습 많이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위성미(17·나이키골프)는 9일 오전 광진구 광장동 W서울워커히호텔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신영과 광고모델 계약을 한 뒤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털어냈다.

오후 늦게 전세기를 이용해 하와이로 출발할 미칠 위는 이번 방한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추억 중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은 남자대회 컷 통과”라고 말했다.

그는 “컷 통과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이라면서 “방송 녹화를 하면서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 너무 좋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것도 좋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와 미국프로골프(PGA) 무대의 향후 목표를 대해서는 “LPGA 메이저대회를 제패하고 싶다”면서 “맥도날드 챔피언십에서 작년에는 2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감이 생겼다. 우승하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드러냈다.

히딩크 내일 방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쓴 거스 히딩크 감독이 11일 한국을 찾는다.

2003년 출범한 히딩크재단 강성통 이사(법무법인세종 미국변호사)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히딩크 감독이 몇몇 행사 참석과 휴가를 겸해 연인 엘리자베스를 동행하고 11일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넵느냐! 막느냐!

9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벌어진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피닉스 선즈-LA 클리퍼스의 경기에서 LA 클리퍼스의 엘튼 브랜드가 슛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피닉스가 130-123으로 승리했다. /AP-연합뉴스

■ 야구장 규모로 본 프로야구 성적표

“대형 구장을 보유한 롯데, 두산, LG는 부진하고 미니구장인 현대, 한화는 날고” 올해 프로야구 흥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팀과 수용 관중 수가 적은 ‘미니구장’을 가진 팀 간 시즌 초반 성적표가 공교롭게도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형’ (롯데·두산·LG) 부진
‘소형’ (현대·한화) 상승세

3만명 수용 규모의 부산 사직구장과 3만5000명 수용이 가능한 서울 잠실 구장을 찾는 팬들은 최근 홈팀의 거듭된 패배가 마음 아프다.

롯데는 “검은 갈매기” 펠릭스 호세의 홈런포 장전과 ‘전국구 애이스’ 손민환의 맹장 수술 복귀에도 최근 5연패를 당하며 8개 구단 중 꼴찌로 추락했다.

홈 관중 수(11경기 기준)는 올해 15만4천315명으로 지난 해(10만3천651명)보다 49% 늘었으나 지는 경기가 속출하니 홈 관중의 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 라이벌’ 두산과 LG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해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던 두산은 최근 4연패에 빠져 7위로 밀려 있고 흥행의 보증수표였던 LG는 2연승 중이지만 두산과 승차 없는 6위에 머물러 있다.

두산은 올 시즌 관중 동원 1위(15만9천431명)에도 지난 해 대비 관중 증가율이 8%에 불과하고 LG는 오히려 4%가 감소한 12만2천88명으로 곤두박질했다.

반면 수원구장(수용규모 1만4천500명)과 대전구장(1만538명)을 각각 홈으로 쓰는 현대와 한화는 각각 팀 순위 단독 1위와 공동 2위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소규모 구장 팀의 상승세와 대형구장 팀의 부진이 계속되면 전체적인 프로야구 흥행에는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KIA 타이거즈는 중·하위권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광주구장(수용규모 1만4천55명)을 찾는 관중들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의 라이벌’ KIA-삼성전이 열렸던 지난달 28~30일 광주구장엔 총 2만5,432명의 관중이 들어섰다. 경기당 평균 8천444명으로 지난해 평균 2천638명의 3배를 웃돈 수치다.

지난달 29일엔 2003년 4월5일 이후 3년여만에 매진을 기록했다.

한편 8일 현재 8개 구단의 올 해 전체 관중 수는 지난 해(67만3천527명)보다 10% 증가한 73만9천810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희섭 3타수 1안타



‘빅쇼이’ 최희섭(27·보스턴 레드삭스)이 마이너리그에서 안타 사냥을 재개했다.

트리플 A 포터킷 레드삭스 소속인 최희섭은 9일(이하 한국시간) 뉴욕의 포린터필드에서 열린 로체스터 레드윙스(미네소타 산하)와의 경기에서 1루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4경기만에 안타를 뽑아낸 최희섭의 시즌 타율은 종전 0.276에서 0.278로 약간 높아졌다. 최희섭은 1회 초 2사 1루에서 우전타를 치고 나간 뒤 후속타자들의 안타로 홈을 밟았지만 3회와 6회에는 삼진, 좌익수 플라이로 타석에서 물러났다.

8회 1사 후에는 볼넷을 골라 나갔지만 다음 타자 루크 얼런이 병살타를 치는 바람에 2루를 밟지 못했다.

포터킷은 이날 4-9로 패했다.

10일(수)

▲NBA 플레이오프(08:30·MBC ESPN)

▲메이저리그(보스턴-뉴욕Y)(07:55·Xports), <류스텐-LA다저스>(11:00·Xports)

▲제7회 중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고등부(16:00·KBS SKY SPORTS)

▲일본 프로야구(오릭스-요미우리)(17:50·SBS스포츠)

▲프로야구(SK-KIA)(18:30·MBC ESPN), <두산-롯데>(18:00·KBS SKY SPORTS), <LG-삼성>(21:50·SBS스포츠) 11일(목)

▲메이저리그(콜로라도-세인트루이스)(02:00·Xports)

▲UEFA컵 결승(미들스브로-세비아)(03:30·MBC ESP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 부동산건설팀. Includes contact info and details for land, houses, and school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아주 특별한 제안. Focuses on high-quality housing and commercial a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지도. Provides information on land prices and development plan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S부동산건설팀. Lists various propertie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용한공인중개사. Offers services for land and housing transactions.